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에레미야서 38: 4-6, 8-10	제2독서	히브리서 12:1-4	복음	루카 12:49-53
--------	------	---------------------	------	-------------	----	-------------

◎말씀 <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닌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말씀은 듣기 불편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분열과 갈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따르다보면 세상과 사람안에 있는 온갖 장벽을 마주하기 마련이고, 그 벽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온갖 시련과 갈등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아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시며 숭한 도전을 거슬러 싸우셨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세상과 개인의 탐욕이 절대선이 된 사람들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길이 늘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세상 시끄럽게 문제 만들지 말고 모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느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평화로운 세상일까요?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따르다가 생기는 갈등을 두려워말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 진통없이 하느님 나라는 도래하지 않는다고 용기를 주십니다.

신앙인답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해 그분 뜻대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생각하며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웃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입장도 견해도 없이 동조하고, 주변 사람들에 편승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답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보보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과 내 손에 든 정보다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는듯 합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신앙인답게 바라보고 말하며 실행해갑니다. 세상과 내 안에 자리잡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온갖 악을 불태우는 것, 그것이 곧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8월20일(화)	성 베르나르도 아바스 학자 기념일	오후7시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590.00 \$ 1,127.00
8월21일(수)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	미사없음	미사예물 성소후원	\$ 795.00 \$ 5.00
8월22일(목)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오후7시30분	사회복지 성물방	\$ 25.00 \$ 107.00
8월23일(금)	연중 제20주간 금요일	미사없음	기타수입 교구2차헌금	\$ 2,000.00 \$ 268.00
8월24일(토)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미사없음	합 계	\$ 4,917.00
8월25일(일)	연중 제21주일	오전 9시 오전11시	미사참례자	아동: 12명 성인: 197명
교무금 봉헌자	박문교(11-12월)김은수.정규선.최재진(7-8월)지복원.이상기(8월)			

◎신앙생활(본당의 쇠신; 본당은 친교의 집. 기도하는 집. 동네의 샘입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교의 기원과 형성 과정

8월 15일은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상 생애를 마친 다음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하늘로 들어 올려진 것’을 기념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의무축일로 규정하고 있는 성모 승천 대축일은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고 기념하는 여러 축일 중 가장 으뜸이라 할 만큼 신앙인들에게 아주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성모 승천’ 교의 어떻게 탄생했나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성모 승천을 ‘몽소승천’ (蒙召昇天)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승천(Ascension)과 달리 하느님에 의해 ‘올림을 받음’ (Assumption)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에 부름을 받았다’는 성모 승천 교의가 선포된 것은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가 회칙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 (Munificentissimus Deus)을 발표하면서 였다고 합니다. 비교적 근자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모 마리아의 육신과 영혼의 승천에 관한 기록은 신약성서와 초대교회 문헌에도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27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도요한이 마리아를 모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어디에서 생을 마쳤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무덤의 소재나 유해에 대한 기록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사망 시기도 ‘예수 승천이후 3일 후’ 혹은 ‘50일’ 등 추측이 다양했습니다. 그런 만큼 비오 12세의 회칙이 선포되기 전까지 성모 마리아의 승천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방교회에 성모승천 교의가 공식화 된 것은 투르의 그레고리오 (538-594)에 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르치아누스 황제(396-457)와 풀케리아 황후가 예루살렘의 세례자 유베 날리스에게 성모의 시신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성모가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콘스탄티노플 근처 발케르네에 경당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승천과 관련하여 신학적 근거가 세워진 것은 8-9세기경 아우구스티노의 서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대 알베르토,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 교황 베네딕토 14세에 의해 성모 승천 교의가 재확인 됐고 이러한 작업들을 바탕으로 1870년경부터 성모 승천 교의가 공식화 되어 한다는 요청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침내 교황 비오 12세는 1950년 11월 1일 회칙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을 통해 성모 승천 교의를 반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성모 승천에 관한 교의가 교황이 주도한 것이란 것보다는 신자들 건의와 청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눈여겨 볼 만합니다. 이후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는 성모 승천과 관련 “티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으며 지상 생활을 마친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으시어 주님으로부터 천지의 모후로 추대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마리아는 다스리는 자들의 주님이시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 아드님을 더욱 완전히 닮게 되셨다” (교회 59항)고 천명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은 왜 8월 15일인가

이 대축일의 정확한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4세기경 안티오키아에서 시작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식적으로 축일이 기념된 곳은 5세기초 예루살렘에서 였으며, 조베날레 주교(422-458) 시대에 예루살렘 근처 카티스마에 세운 마리아 성지의 봉헌 기념일, ‘하느님의 어머니’ 축일이 8월 15일이었던 데서 유래했다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 카타리나/백정심. 막달레나 전기례. 베레나/김나미. 로사/김옥륜. 세실리아 추소연. 세실리아/염안드레아/김숙자. 수산나 서향자. 글라라/김초지. 마리아/최이주. 베아타 이규청. 제노비아/염모니카/신용경. 그레고리오 배미성. 오틀리아/박모란. 글라라/원혜리나. 헬레나 고공자. 벨라뎃다
-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 박율리아. 916-990-6531/박프란치스코.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황순이. 마리아의 영혼	황성연. 안토니오	생	임혜숙. 그라시아의 영육간 건강	정의의모후Pr.
연	이무선. 마리아의 영혼	박. 프란치스코	생	임혜숙. 그라시아의 영육간 건강	이영숙. 데레사
생	김채홍. 어거스틴, 김정애. 헬레나의 영육간 건강	전. 율리안나	생	박성우. 바오로의 영육간 건강	효주아네스

간증문지

◎성모 승천◎
 촛불 한 자루 마주하고 불꽃으로 어리는 님 뵈오리다
 내 님 스러질까 봐 감은 눈 끝내 뜨지 못하오리다. 유경환. 클레멘스. 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 새 생명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성 명: 전노아
출생일자: 2019년6월 18일생
가족관계: (부) 전기주.안토니오
(모) 양지연.이냐시아
(형) 전재민.미카엘
구 역: 8구역

윤지영.비오
윤귀순 (이상 6구역)

●공동체 소식(본당의 쇠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예비신자 교리반 시작(성탄반)
매주 목요일 오후8시.데레사방
예비신자를 계속해서 인도해주세요(8월말까지)
지속적인 전교를 실천합시다.
- 2.모임안내
꼬미시움:18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사 목 회:25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연 령 회:25일(일)오후1시.마태오방
- 3.본당신부님 휴가
일시:18일(일)-30일(금)
평일전례;화.목요일(말씀의 전례) 부제님
주일미사;25일(일)9시/11시. Edward Pepka신부님
- 4.본당 재정감사
일시:28일(수)오후7시.사무실
- 5.추석합동위령미사 및 본당의날 행사
일시:9월8일(일)오전11시.성당
(미사전 합동연도있으며 미사중 가족분향있음)
조상님을 위하여 위령미사를 봉헌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주세요 (신청:사무실or 전례부장)
본당의날 행사계획:추후공지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적극 참여해주세요
- 6.레지오 일일피정
일시:9월14일(토)산호세성당.6시30분 출발
주제:레지오 단원의 성모신심 문의:윤재경
강사.조영중.율리오(북미 세나투스 단장)
- 7.청년회 피정
일시:9월21일(토)-22일(일) 장소:Lake Tahoe
문의:최스텔라(카톡;steljchoi)
많은 관심과 후원부탁해요.
- 8.본당 골프대회(주일학교 후원위한)
일시:10월13일(일)오후1시30분(Shotgun)
장소:Lincoln Hills 참가비:\$85
문의:장현철(916-293-2499)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네이션:김용문(Golf Shoe Bag 8개)감사합니다

- 9.남가주 ME 제81차 주말안내
일시:9월13일(금)-15일(일) 오후7시30분 시작
장소:아씨시피정센터 문의:이은로.이진숙
- 10.St.Mary 천주교공동묘소 한국Section 계약
일시:18일(일)오전10시-오후2시
장소:친교실 마태오방 앞
문의:고원석.바오로(916-813-4440)
- 11.무료건강검진(Health Fair) 안내
일시:10월12일(토)오전8시-오후1시
주최:정혜엘리사벳성당.한인간호사협회
문의:김규철.레오(952-836-7117)
약품구매/행사경비마련위한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 12.감사합니다(도네이션)
감사헌금:김병준(\$1,000)

<주일/한글학교 소식>

주일학교 등록 및 접수

기간:8월25일(일)-9월7일(토)성당.미사전후

Youth Leadership Seminar 첫모임

일시:8월25일(일)오전10시-정오.성당

대상:고등학생 문의:김형일.안드레아

주일학교 학부모 연수 안내

일시:9월7일(토)성당

대상:모든 주일학교 등록학생 학부모님들

내용:새로 바뀌는 '학부모 주일학교 수업'

On Fire(Diocese Youth Day) 안내

일시:9월14일(토)오전9시-오후9시

대상:본당 고등학생/청년부 문의:김형일

- 식사봉사(이번주):아빌라회 보조:진엘리사
- 식사봉사(다음주);각구역장 보조:이서향
-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5-6구역

화답송



주 님 어 서 저 를 도 우 소 - 서

전례봉사	연중 제20주일(8월18일)	연중 제21주일(8월25일)	연중 제22주일(9월1일)	연중 제23주일(9월8일)
해설	김선영.플로라	임상일.프란치스코	정미정.루시아	김은영.폴리나
제1독서	안병훈.스테파노	김미해.세레나	이재덕.스테파노	김도철.베드로
제2독서	안혜숙.세실리아	진엘리사.엘리사	이은희.요세피나	김진영.말따
복사	김규철.윤여훈	허호영.박성호	최진호.이상인	최준우.장현철
봉헌/기도/청소	5-6구역	5-6구역	5-6구역	5-6구역
헌금위원	전비아.유정임.나송희	임상일.박병수.안혜숙	고원석.윤재경.안강순	안병훈.박수옥.정의주